



# '87 육계 복(伏) 경기를 전망한다

- 일 시 : 1987년 4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본회회의실
- 참석자 : 강석부(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수원사업소)  
권경익(육계남새조합 전무)  
김정인(신촌사료 전무, 본회 편집위원)  
장민기(버들농원 대표, 본회 육계담당부회장)  
조정래(본회 수원육계분회)  
함경섭(한일농원 상무) (가나다순)
- 사 회 : 노영한(본지 편집국장)
- 정 리 : 김용화(본지기자)

사회·최근에 브로일러 입식이 과열되는 느낌이 있어 그 실재를 진단해 보고 40~50일 후의 경기를 예측코자 합니다. 브로일러 산업이 아직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예상되는 문제와 유통상의 대금결제, 배합사료 가격추이 등 브로일러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상무님께서 현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 ■ 5~6월 닭값 현상유지

함·아무래도 감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연초에 구정이나 정월보름을 기해서 원가이하로 하락이 되면 복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면 병아리 품귀현상을 초래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금년 1~2월에 병아리값이 나뉘던 것으로 보아 물량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양가들이 너무나도입식과열 현상을 보이지만 이것에 의해 육계가격이 하락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시중에 출하되는 물량이 약간 부족현상을 보이고 또한 재고물량도(비축포함) 없습니다. 5월 정도에는 가격이 약간 떨어져도 성수기를 앞두고 이축할 수 있으므로 원가이하를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초생추 생산 숫자라든지

잠재량 등은 월간양계에 계속 제재가 되고 있지만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함상무님은 4월, 5월에 입식은 많이 되지만 성수기를 앞두고 별 걱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병아리가격 부담 커졌고 복대 가격 하락 우려

조·현재 사료의 양으로 보았을 때 87년 3월의 사료생산량이 26,400t이었고 86년 3월의 사료생산량은 23,000t, 86년 4월에 26,000t이었음을 볼때 작년보다 1개월쯤 앞서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병아리 가격이 300원이 됐으니깐 약간 과열되면 4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병아리 가격은 아무래도 복대를 대비한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물량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병아리를 입추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가격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에서 사료비가 과거보다 내린 것이 병아리 가격이 상승한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인 원가 구성비에서 보면 과거 사료비가 70%, 병아리가격이 20%, 나머지 부대비용이 10%로 잡았

는데 요사이 병아리 가격이 30%가 되고 있는 것이 적정한수준이냐 하는 것이 나오고 또한나는 금년 여름의 병아리는 월 2,400만수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작년보다 종계가 10% 정도 증가했으므로 금년에는 2억5천마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금년 여름 성수기에 2천4백만수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높은 가격으로 입식시킨 것이 흑자를 보겠느냐에는 의구심이 갑니다.

### ■ 계절별 가격진폭 줄여야

권·83년부터 일일가격동향을 체크하였는데 보통 1월달까지는 시세가 좋은데 2,3,4월은 별로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84년만은 3월달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85, 86년에는 복대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9월 하순부터 11월 사이에 매우안좋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축가와 부화업체에서 이것을 잘 조절해 주면 가격조절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닭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좀더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6월 시세가 복경기 좌우해

강·육계생산자로서 금년 복경

기에 대한 전망은 4월 사료생 산량이 3월보다는 25% 증가한 것에 비추어 4월~5월달에 입 추되는 병아리는 5월 중순에서 6월말까지 닭고기 가격을 형성 하므로 지금보다는 100원 정도 하락되는 선에서 kg당 700~ 800원선을 형성하리라고 예상 을 합니다.

병아리는 5월 중순 내지 말 에 한번 정도 약세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6월까지 복입 추 대비시에는 가격이 다시 상 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달의 육계시세에 따라 금 년의 복(伏) 경기가 좌우될 것 입니다.

6월달에 생산원가에서 머문 다든지 그 이하로 하락될 때 병 아리 가격도 거기에 준해질 것 으로 보이므로 현재 부화장이 400원 이상을 예상하지만 6월 의 닭시세가 나쁘게 형성되면 그 반대로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우리가 매년 육계값을 분 석해 보면 3개월반 내지 4개월 주기로 가격의 진폭이 형성되 는데 주기가 매우 정확합니다.

수요기와 비수요기에 따라서 그 기간이 반달 내지 한달정도 차 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정확한 사이클(cycle)을 형성하는 것 을 보면 5월달 후반이 되면 시 세가 떨어지는데 4월 입식 병 아리 과잉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 과 수급능력을 종합해서 말씀 해 주시지요.

### ■ 병아리 생산잠재력 커 입식 자제요망

장·작년 10월 하순기부터 현 재까지 6개월 동안 그런대로 육계값이 견딜만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병아리값도 육계값과 평행적으로 이어져왔 습니다. 종계에 의해서 생산잠 재력을 추산하는데 병아리 생 산잠재력 이상의 병아리가 나 올 것이라는 추측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번 복 때에는 실 질적으로 병아리가 훨씬 더 많 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하순이후 사료가 급증하 는 것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조 금은 자제를 해야 할 때가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 ■ 병아리값 비싼 것 양축가 이해 안돼

강·육계시세가 좀 난해한데 작 년에 종계분양을 근거로 금년 에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금년은 현재까지 가 격이 비교적 안정되었습니다.

종계의 질병피해가 많다고 생 각이 되어 병아리 물량이 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런 것인지 아니면 부화장의 경 영판매 전략인지 양축가 입장 에서는 의문이 갑니다.

다행히 4월말까지 닭값이 좋 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반증 이 되는데 5월 중순이나 6월달 에 가봐야 부화장에서 밝힌 대 로 종계가 생산성이 나빠 병아

- 강석부
- 권경익
- 김정인



리가 적게 나왔다는 것이 증명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6 월 중순이 가면 쉽게 판매했던 것입니다.

### ■ 5월부터는 병아리 생산량 감소한다.

함·병아리 가격이 오늘까지

## 66

금년 육계 복(伏)경기에 대한 전망은  
4월 사료생산량이 3월보다는 25% 증가한 것에 비추어  
4~5월에 입추되는 병아리는  
5월 중순에서 6월말까지 닭고기가격을 형성하므로  
지금보다는 100원 정도 하락되는 선에서  
kg당 700~800원선을 형성하리라고 예상합니다.

6월의 육계시세에 따라  
금년의 복경기가 좌우될 것입니다.

## 99

· 장민기  
· 조정래  
· 함경섭



300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부화장의 사명감에 의한 기업윤리관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윤리관은 사양가 측에서도 가져야 합니다. 가격의 동결 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기여를 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자사와 계열부화장 병아리의 전국 시장채어가 45%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아리 생산량은 4~5 월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5월~6월부터는 줄어야 합니다. (5~6월달에 피크를 맞추면 판매할 기간이 없어집니다). 4월을 피크로 해서 복때는 물량이 15~20%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부화장의 입식 전략입니다. 4월에 피크를 맞추지 않고 6월에 피크를 맞추면 복경기를 놓치게 됩니다.

사양가나 기업가가 윤리관을 가지고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수율을 올리지 못

하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 ■ 종계 생산성 의외로 낮아

사회·종계의 CC 생산 잠재력이 과거하고 상당히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계가 최근에 개량이 많이 되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양 문제, 사양관리문제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치 못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개량된 브로일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성이 낮아 병아리 생산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계뿐만 아니라 CC도 문제입니다. 생산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질병피해 의외로 크다

조·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육계에서 제일 큰 문제는 가격적인 면보다는 질병이라고 봅니다. 겨울철에는 보온미비 등 계사가 너무 허술해서 기온의 변

화가 심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며 앞으로는 계사를 지을 때 적온대를 넓히도록 단열재 처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사폭이 좁다보니 여름철에 햇빛이 들어 가용면적이 적어집니다. 이것이 질병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로 키우는 닭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헬리콥터병과 보트리움 같은 증상의 병아리가 많이 나오는데 비타민결핍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B군과 E군을 사료에 더 첨가해 주니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료제조시 비타민첨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배합사료중 비타민함량에 불신 커

사회 • 이것은 브로일러뿐만 아니라 종계업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지난해 11월 이후가 심했는데 그 결과로 별도로 추가하여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비타민B·E군 때문에 동물약품업체와 사료공장간에 불협화음도 많았고 양축가와 사료공장과도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육계업자보다는 종계업자가 더 컸다고 여겨집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양문제 외에 육계에서 백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엠티마렉병(MD)병 피해도 상당한 수준에 미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밖에 더 보충해서 설명이 있습니까?

## ■ 육계사육은 all in- all out이 기본

함 • 저는 사양가에게 늘 all in-all out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all in-all out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원인제거가 안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all in-all out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생산효율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유통의 문제도 수월해집니다. 10여년 경험에 미루어 육계업자 중 올인, 올아웃을 하지 않은 농장은 거의가 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 지금 일부 농가에서 IB백신을 하고 있는데 IB백신은 MG균하고 굉장히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출하할 때 무균상태에서 고루 백신을 해줘야 합니다.

농장에서는 MG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백신을 하다보니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호흡기 질병이 발병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종계 분양시 직접 IB백신을 해주는 체제로 바꾸는 연구는 없습니까?

## ■ 양축가 서비스 개선될 터

함 • 아무래도 육계보다는 산란계를 우선시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IB백신을 부화장에서 하면 후유증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수당 일일이 접종할 수도 없고 결국 분무로 해야 하는데 입자 크기에 따라 면역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더 연구 후 IB백신을 해서 출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 닭 유통시 어리장에 문제가 많은데 최근 플라스틱 제품이 보급되어 물로 씻기도 좋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즈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소개업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 필요악, 중간 소개업자

권 • 상인입장이나 생산자 입장에서 보아도 횡포가 심한 실정입니다.

처음(84년)에는 소개업자의 등장은 상인쪽에서 요인을 제공했다고 보는데 겨울에는 사라졌다 여름 성수기에 등장했습니다.

처음 육계를 시작할 때 거래처가 없어 싸게라도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때 소개업자가 판매를 해주니 필요합니다.

상인입장에서도 차를 갖고가면 주인이 없어 닭을 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소개업자가 해결하여 줍니다.

자기자본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괜찮지만 자본이 떨어지면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현찰거래를 하지만 신용이 점차 높아지면 외상거래를 하다 부도가 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요즘은 생산자가 외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상인도 외상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외상을 밤에 싣고 오면 그 다음날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생산자가 대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소개업자가 받는 데에 있습니다.

소개업자는 앉아서 20일쯤 현금을 이용하고 대신 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00kg을 소개하면 전화요금 몇 푼들이고 10만원 정도를 버는 셈이 됩니다. 생산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소개과정에서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업자는 질대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상인은 상인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단합을 해야 합니다.

사회·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개업자의 횡포는 있어도 사실은 중요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준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원에서는 조합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강회장님께서 보시는 소개업자 역할 대행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 소개업자의 업무를 대행할 생산기구가 있어야

강·저는 소개업자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계산업이 올인올아웃으로 전환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2~3천수 입추시와는 다르게 3~4만수씩 출하가 될 때 판매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럴 때 소개업자가 판매를 담당해 주니까 중간에서 수수료는 떼지만 2~3일 판매에 따른 안절부절 등 심적 부담이 없어 집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소개업자가 생기지도 않기도 않았을 것입니다. 육계산업 유통발전에 과도기적 형태라고 봅니다.

육계유통의 바람직한 방법은 첫째로 계열화 생산체제이고, 둘째로 공판장 설치인데 대량 판매를 할 때 판매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므로 수수료를 주더라도 판매를 대행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 ■ 도계장 중심도매시장이 바람직

장·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유통자체가 생산자가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닭고기유통은 중앙도매시장처리가 어렵습니다. 완전냉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도계장 단위로 도매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닭판매 소개에서 병아리 소개로

조·양축가들도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닭값이 오르면) 제 때에 닭을 내놓지 않아 상인을 애먹이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 14군데 수원에 4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각 지역에 난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개업자가 닭출하 소개뿐 아니라 병아리 유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지역에서는 계열화 사업 조합에서 회원들과 상인들에게 어음이라도 발행해 주니까 닭수는 많지만 소개업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일부에서만 하면 효과가 적고 도계장을 통한 유통이라든지 양축가들이 단합을 하여 대형 유통이 되어 소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유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이것은 한국형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어쨌든 계열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때 이것을 유도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일례로 수원계우회 등에서 현장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소개상없이 유통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료원료추세 동향 및 가격전망에 대해 김전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료가격 오를 전망

김·생산효율 제고방안에 있어 비타민 B, E 그룹이 부족해서 생

산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사료업체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육계사료 중 제일 중요한 원료는 곡물입니다. 고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원료는 옥수수과 기타 곡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주로 미국에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해 묵은 관계로(연속되는 풍작으로) 질에서는 양호하지 못합니다. 분석상의 차이라고 해명은 하지만 질이 떨어짐은 사실입니다.

옥수수가 오래 묵게 되면 씨눈이 파괴되거나 분쇄되어 비타민 E 등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좋은 옥수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자체적으로는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영양학 측면에서도 비타민 E의 요구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질이 나쁘다면 사료회사에서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 ■비타민 결핍증 사료회사에서 해결해야

생산효율제고라는 것은 육계에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육계 생산성이 10~15% 향상됐는데 품종개선과 사료영양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월간양계지에 발표된 능력검정시험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66**  
**원화상승은  
사료가격 인하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지만  
닭고기의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어 수입을 촉진하는  
역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99**  
축산에서 3대요소는 품종, 사료,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라고 볼 때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을 선택해야 하고 사료효율면에서는 펠릿사료의 사용증가입니다. 펠릿사료를 급여하면 근위가 줄어들다 하는데 내장도 같이 줄어들어 도계장에 출하할 때 불가식 부분이 줄어들므로 지육율이 높아져 원가절감이 충분히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 ■육계는 펠릿사료 이용이 절대 유리

사료효율면에서는 펠릿사료의 사용 증가입니다.

일부에서 펠릿사료를 급여하면 근위가 줄어들다 하는데 내장도 같이 줄어들어 도계장에 출하할 때 불가식 부분이 줄어드므로 지육율이 높아져 원가절감이 충분히 됩니다.

다음은 사료가격의 전망인데 곡물시세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두박, 어분등 단백질 자원도 상승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수수는 옥수수에 경쟁력을 잃어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료용 소맥도 계속 오를 것으로 봅니다.

단백질 자원은 식물성 박류와 어분이 있는데 이것도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곡물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의 생산이 작년과 비슷한데 실제로는 정부의 예산량보다 업계에서는 70만톤이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곡물사용이 많은 육계사료는 품질유지를 정상화한다는 전제로 원가상승 요인이 많습시다. 가격이 상승된다면 7월 하순~8월 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환율인하에 따른 이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양축가 입장에서는 좋은 자질의 병아리 선택과 품질 좋은 사료의 선택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원화상승은 사료가격 인하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만 닭고기의 국제경쟁력을 잃어 수입을 촉진하는 역작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계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